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 임상집단의 Rorschach 반응 특성에 관한 분석연구*

육 근 정[†] 도 진 아 배 호 순 임 명 호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과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단국대학교병원정신과

본 연구는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절차에 따라 외현화, 내재화, 혼재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로샤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 특성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는 각 집단의 로샤 반응의 특성을 비교해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한 결과, 핵심영역에서 R, EB비율, 정서영역에서 색채반응 총합, 자기지각영역에서 Mor반응, 대인지각영역에서 AG반응, 중재영역에서 X+%, 특수지표에서는 SCZI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문제 2에서는 K-CBCL하위변인과 로샤 반응과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여 심리적 특성과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내재화 문제는 AG반응, 소외지표, 색채반응 총합, R과 유의한 역상관 보였고, 외현화 문제는 Mor 반응, P, Mp반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결과, 내재화 문제는 반응수가 적고, 내적 사고활동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며, 자기 손상감이 많고, 관습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격성이 적은 한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이 높고, 감정표출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며, 사고나 인지왜곡 같은 인지 오류가 많고, 손상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인관계에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 혼재문제의 경우, 심리적 특성은 내재화 문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행동화된 문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을 외현화된 방어기제를 사용해 대처할 가능성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재화 문제의 경우 내면의 손상감, 낮은 자기 존중감, 심리적 고통감을 경감시키고, 분노나 적개심을 끌어내어 외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치료,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외현화 문제는 계획능력과 통제력 및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행동의 결과를 인식시키는 인지행동치료, 행동수정과 같은 치료적 개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주요어 :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혼재된 문제, Rorschach, K-CBCL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07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 2007년 8월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바 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육근정 /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 천안시 안서동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 / E-mail : doumkj@hanmail.net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의 정신과적 문제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아동의 행동문제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에서 주목을 받는 등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으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아이들이 나타내는 문제가 점차 다양해졌다. 사회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지나쳐왔던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한 예로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1)는 초등학교 한 반의 10% 정도가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행동문제가 더 이상 정신적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라기보다 일반 아동 누구에서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Patterson, Babara, DeBaryshe와 Ramsey(1989)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발달적 과정 모델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 행동문제는 중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학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어린 연령에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서문제의 경우, 성인에 비해 역사는 짧고, 진단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나, 초기 아동기에 나타난 문제를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부가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 정신병리학의 범주적 접근에 따른 진단 분류체계는 크게 정서장애와 품행장애로

구분될 수 있고(Quay, 1979; Rutter, 1976), 이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장애로 알려져 있다. Rutter(1970)등은 정신의학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21%에서 정서장애와 품행장애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아동을 ‘혼재된 장애(mixed disorder)’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Achenbach(1991)는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재화 행동문제에는 우울, 불안, 위축 등 과잉 통제된 행동이 포함된 반면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비행과 공격성 같은 과소 통제된 행동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증과 품행장애, 그리고 우울과 품행장애가 공존하는 아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내재-외현화 혼재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 부모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부부갈등 관찰자에 의한 평가로 연구가 한정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정서적 특징을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부모나 교사의 보고 등 관찰자에 의한 검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보고하는 아동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발달과정 중에 있는 면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의식, 원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심리나 마음 상태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언어를 매개로 하

는 객관적 심리검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로샤(Rorschach), 주제통각검사(T.A.T.), 집-나무-사람검사(H.T.P.) 같은 투사법 검사라고 할 수 있다(신민섭 외, 2002).

투사법 검사는 개인 특유의 학습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개인의 무의식적 충동, 감정, 태도, 갈등 등을 진단하는데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된 심리검사이며, 이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가 Rorschach 검사이다(강봉규, 2004). 아동이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발달 단계에 있어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한다면, Rorschach검사는 내재된 정서 상태 및 현재 증상을 확인하고 결과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볼 수 있다(신민섭, 1994). 또한 Garfield(2000)가 주장하였듯, Rorschach를 실시하여 피검자의 특성들을 알아보는 것이 피검자가 지각한 수준보다 더 깊은 무의식적 차원의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rschach를 활용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민섭과 고승희의 연구에서 우울증, 우울증적 품행장애와 품행장애 간의 Rorschach 반응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1995), 신민섭, 고승희의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한 우울증, 우울증적 품행장애, 그리고 품행장애 간의 진단 분류적 접근에 관한 연구(1995), 양익홍의 품행장애 아동의 Rorschach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2000) 등에서도 Rorschach 반응의 특성을 통해 아동기 정서 행동 문제를 이해하고, 진단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추후 나타날 부적응 문제를 예측하고자 시도하였다.

아동도 성인 정신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입장과 함께, 연령에 따

라 독특한 임상적 특징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듯(Cantwell & Carlson, 1988; Kovacs & Beck, 1977; Puig-Antich, Blau, Marx, Greenhill & Chamber, 1978) 성인 정신장애에서 보이는 특징만을 근거로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아동행동의 적응 문제를 경험적인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Rorschach 검사에 나타난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이해할 뿐 아니라 추후 심리치료에 있어 치료적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 내재화, 외현화, 혼재된 문제를 가진 각 집단 간 Rorschach 반응 변인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각기 다른 아동의 행동 문제와 로샤 변인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부모가 보고한 행동문제를 근거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혼재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각 집단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관심을 두고 Exner 방식의 Rorschach 구조적 요약을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D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내원해 종합심리검사가 의뢰된 7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문제 행동의 패턴을 분류하고자 K-CBCL에서 내재화 지표, 외현화 지표를 사용하였고, 내재화 지표 63T이상이면서 외현화 지표 63T 미만은 내재화 집단, 외현화 지표 63T이상이면서 내재화 지표 63미만은 외현화 집단, 내재화 지표와 외현화 지표 모두 63T 이상은 혼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연구 자료에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로샤 반응 수 12개 미만인 자료, 지능검사 FSIQ=80점 이하인 자료는 결과분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내재화 집단 18명, 외현화 집단 18명, 내재화-외현화 혼재집단 18명으로 전체 5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검사자

로샤 연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여러 검사자들 간의 검사 수행의 개인차 변인을 통제하는 것과 각 사례에 있어 채점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2명의 검사자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중인 연구자가 표준화된 절차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했다.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자료를 본 연구자가 일차로 재채점한 후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일치하는 채점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도구

한국판 아동기 행동평가 체크리스트(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의 적응 및 정신과적 문제 행동을 부모가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것을 오경자, 이해련 및 홍강의(1990)가 번역하여 표준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1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아동의 행동문제를 0점(전혀 해당되지 않음), 1점(가끔 보였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음), 2점(자주 보였거나 정도가 심함)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CBCL은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등 총 8개의 하위척도와 내재화 문제 점수, 외현화 문제 점수, 총 문제 행동 점수의 종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CBCL의 표준화 연구(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에 따르면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2에서 .86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고, 1개월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분류를 위해 K-CBCL 종합 척도 중 외현화, 내재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로샤 검사(Rorschach Test)

로샤 검사는 10장의 잉크반점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21년 Hermann Rorschach가 성격 분석의 도구로서 그 유용성이 인식되어 연구 발표된 이후 줄곧 임상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검사 사용 초기에는 실시방법, 채점 및 해석방식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가 Exner(1974, 1986, 1993, 2003)에 의해 여러 방식들에서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된 부분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연구 결과만을 채택하여 로샤 종합체계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종합체계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정확하게 채점하고 각 변인들의 빈도, 비율, 백분율, 및 특수지표와 같은 구조적 요약을 통해 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개념적으로 의미 있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신뢰로운 일련의 점수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구조된 요약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핵심영역, 사고영역, 정서영역, 중재영역, 대인관계영역, 처리영역, 자기지각영역의 7개의 자료 군을 구성하게 되며, 6개의 특수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Rorschach 검사의 신뢰도 연구(김연, 이정호, 한양순, 신은혜, 1989)에 따르면, 7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7개의 검사 요인 중 9개의 요인에서 .70이상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자료 분석

1) 내재화 집단과 외현화 집단, 혼재 집단 간 성별과 학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고, 집단 간 IQ 및 Rorschach 변인의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ANOVA)과 Tukey 사후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체 지능과 동작성 지능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언어성 지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로샤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언어성 지능을 공변인으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Helmett 대비분석을 시행했다.

2) K-CBCL의 하위척도(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충 문제 행동, 성문제, 정서불안정)와 로샤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내재화 척도, 외현화 척도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각 집단 간 연령 및 IQ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내재화 집단, 외현화 집단, 내재화-외현화 혼재집단 간에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F(2, 54)=3.074, ns$.

DSM-IV를 기준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임상심리전문의의 진단이 일치한 경우로 각 집단을 진단분류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전체 IQ에서는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F(2, 54)=.52, ns$, 동작성 기능에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2.52, ns$. 언어성 기능에서

표 1. 각 집단 간 인구학적 변인

	내재화 (n=18)		외현화 (n=18)		내-외 혼재 (n=18)		X ²	Sig.
	남	여	남	여	남	여		
성 별	12	6	13	5	14	4	.55	.77
연 령	저1) 10	고2) 8	저 13	고 5	저 11	고 7	1.11	.57

주. 1) 초 1~3, 2) 초4~6

표 2. 각 집단 간 환자 진단분류

진단명	내재화 외현화 내외혼재		
	1진단	1진단	1진단
Depression	8	-	1
ADHD	1	17	10
Emotional problem	3	1	3
Tic/ Tourette	-	-	-
Somatoform Dis.	2	-	-
Adjustment Dis.	1	-	-
Anxiety Dis.	2	-	-
PTSD	1	-	2
Conduct Dis.	-	-	1
Anorexia Nervosa	-	-	1
Depression+ADHD*	-	-	4
ADHD+ EP1)*	2	1	3
ADHD+Enuresis*	1	-	-
Depression+CD2)*	-	-	1

주. 1) EP: Emotional Problem, 2) CD: Conduct Disorder

* : 중복진단

편의상 주 진단만 기록하였음.

표 3. 각 집단의 연령 및 지능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재화	외현화	내-외혼재	F	대비
	(n=18)	(n=18)	(n=18)		
	M(SD)	M(SD)	M(SD)		
연령	8.90 (1.56)	8.06 (1.31)	9.22 (1.48)	3.07	
전체 IQ	106.39 (14.24)	103.44 (13.02)	102.22 (10.29)	.52	
언어성 IQ	111.06 (17.59)	102.78 (11.71)	97.94 (13.03)	3.85*	1> 3, 2
동작성 IQ	97.67 (12.60)	102.72 (12.15)	106.67 (11.40)	2.52	

는 외현화 집단과 내-외 혼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내재화 집단이 내-외 혼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3.85, p<.05$ 따라서 로샤 반응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검사이므로, 언어성 기능이 로샤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언어성 기능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에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 1에 따라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내재-외현 혼재문제를 가진 아동의 집단 간 로샤 반응 변인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1) 핵심영역/ 스트레스 통제력과 내인력

본 연구에서는 R, L, EB, D, Adj D 변인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 R(반응수): 본 연구결과, 전체 반응수인 R의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화 집단이 내-외 혼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9.15, p<0.001,$

(2) L(람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Lamda값에 있어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 =7.23, ns.$

(3) EB: EB는 인간 운동반응(M)과 가중치를 둔 색채반응 총 점수(Sum C)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의 반응스타일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EB비율(M/ Sum C)을 계산했는데,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내-외 혼재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9.59, p< .05.$

(4) D점수: 현재 적응능력과 대처능력을 나

표 4. 각 집단 간 로사 반응 변인 점수의 비교

	내재화집단 ¹⁾		외현화집단 ²⁾		내-외 혼재집단 ³⁾		F (ANCOVA) ¹⁾	대비분석	
	(n=18)		(n=18)		(n=18)				
	M	SD	M	SD	M	SD			
핵심영역(core section)									
R(반응수)	17.78	4.31	21.56	4.85	15.67	2.95	9.15***	2>3, 1	
L(Lamda)	2.73	3.43	2.70	1.80	1.87	1.17	7.23		
EB(M:SumC)	2.17	1.52	1.42	1.06	2.88	2.15	9.59*	2<3, 1	
스트레스 통제와 내성(Capacity for control and stress to tolerance)									
D	-.06	.24	-.06	0.87	-.11	.68	0.31		
Adj D	0	0	0	.91	-.06	.73	0.17		
정서영역(affect section)									
Sum C	1.06	1.2	1.86	1.70	.44	.86	5.09*	2>3, 1	
Sum shading	.94	.87	.61	1.14	1.06	.94	1.48		
Afr	.36	.13	.41	.17	.36	.14	.73		
Blens	1.33	1.71	.94	.99	1.28	.83	.47		
CF	.67	.77	1.17	1.42	.28	.57	3.49*	2>3, 1	
S	1.33	1.85	1.50	1.98	.89	.96	.50		
자기지각영역(self-perception section)									
3r+(2)/ R	2.83	1.95	3.67	2.61	1.78	1.90	3.02		
Mor	1.22	1.35	.33	.49	.50	.86	5.93**	1<2, 3	
대인관계영역(interpersonal section)									
COP	.06	.24	0	0	.06	.24	.60		
Pure H	1.44	1.42	.89	1.02	1.33	1.28	.92		
AG	.39	.50	1.22	1.27	.44	1.15	3.57*	1, 3<2	
정보처리영역(processing section)									
Zf	8.89	3.48	10.72	2.99	9.11	2.30	1.97		
Zd	-.99	3.87	-1.31	7.58	.56	4.30	.67		
중재영역(mediation section)									
P	2.72	1.67	1.94	1.47	1.28	1.23	.54		
X+%	.34	.11	.29	.12	.40	.11	3.57*	2<3, 1	
X-%	.26	.09	.28	.11	.25	1.00	.45		
Xu%	.39	.14	.41	.13	.35	.15	.52		
사고영역(ideation section)									
Ma	1.33	1.03	1	1.14	2	1.78	2.09		
Mp	1.44	1.29	.89	.96	.50	.51	2.05		
Sum 6	1.11	1.23	1	1.37	.89	1.53	.03		
WSum6	3.89	3.83	2.72	4.11	2.56	3.73	.21		
특수지표(special indices)									
SCZI	2.00	1.23	2.28	1.23	1.50	.99	3.29*	1, 3<2	
DEPI	3.33	.91	3.17	.62	3.17	.71	.49		
CDI	3.72	.96	3.67	.91	3.72	.67	.04		

주. ¹⁾ covariance; VIQ(언어성 지능), * $p < .05$, ** $p < .01$, *** $p < .001$,

타내주는D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31, ms$. 내재화 집단, 외현화 집단은 유사했으나 내-외 혼재집단이 가장 낮았고, 모든 집단이 $D<0$ 은 범위에 해당하였다.

(5) Adj D: 현재 개인에게 부과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지, 만성적인지를 구분해주는 Adj D 연구 결과, 내재화 집단, 외현화 집단, 내-외 혼재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F(2, 54)=.17, ms$, 평균을 비교해볼 때 내재화 집단, 외현화 집단의 경우 $D < AdjD$ 이며, 내-외 혼재집단은 $D > Adj D$ 로 나타났다.

2) 정서영역

정서 영역(affect section)에 있어서는 Sum C, sum shading, Afr, Blends가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 Sum C: 정서 표현에 인지적인 활동이 개입되어 있는 FC반응, 정서 표현에 있어 인지적으로 덜 통제적인 CF반응, 인지적 통제력이 결핍된 강렬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C반응의 총합인 Sum C 결과,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화 집단이 내-외 혼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5.09, p<.01$.

(2) Sum shading: C(무채색), 재질(T), 차원(V), 확산(Y) 반응이 포함된 무채색 및 음영반응의 총합인 Sum shading에서는 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1.48, ms$.

(3) Afr: Afr(정서비)는 정서적인 상황에 관여하여 적절히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인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Afr값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73, ms$.

(4) Blends: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이 개입되

어 있음을 나타내는 Blends(혼합반응)는 세 집단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F(2, 54)=.47, ms$.

3) 자기지각영역

자기지각 영역(Self-perception section)에서는 자기중심성 지표, 병적인 내용 반응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3r+(2)/ R: 자신에 대한 초점과 타인에 대한 주의 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자기중심성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3.02, ms$.

(2) MOR: 자기와 환경에 대한 시각이 엄격적이고 비판적임을 나타내는 병적 내용(Mor) 반응에서는 외현화 집단, 내-외 혼재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내재화 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5.93, p < .01$.

4) 대인지각영역

대인지각 영역(Interpersonal section)에서는 COP, H, AG 반응이 분석되었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COP: 대인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COP결과, 각 집단 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F(2, 54)=.60, ms$.

(2) H: 인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H반응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92, ms$.

(3) AG: 분명하고, 직접적인 공격성과 관련된 반응으로 공격 반응의 결과,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재화 집단에 비해 외현화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3.57, p<.05$.

5) 정보처리영역

정보처리 영역(processing section)에서는 Zf, Zd가 분석되었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Zf: 조직화 점수(Z)가 나타난 빈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인지적인 활동의 적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Zf결과,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 = 1.97, ns$.

(2) Zd: 인지적인 활동의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Zd 결과,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F(2, 54) = .67, ns$.

6) 중재영역

중재영역(Mediation section)은 P, X+%, X-%, Xu%를 분석했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P: 잉크반점의 평범한 특징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지각하여 반응하는 능력인 평범반응(P)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 = .54, ns$.

(2) X+%: 잉크반점의 형태를 관습적이고 현실 지향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X+ %는 내-외 혼재집단, 내재화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내-외 혼재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 = 3.57, p < .05$.

(4) Xu%: 전체 반응 수에서 형태질이 드문 (unusual)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로 잉크반점의 윤곽을 비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Xu%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F(2, 54) = .52, ns$.

(3) X-%: 전체 반응 수에서 형태질이 왜곡된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각적 왜곡 또는 지각적 적절성의 결여 정도를 나타내는 X-%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F(2, 54) = .45, ns$.

7) 사고영역

사고영역(ideation section)은 Sum 6, Wsum 6이 분석되었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Sum6: DV, INCOM, DR, FABCOM, ALOG, CONTAM 6개의 특수점수의 빈도 합으로 경미한 인지적 손상내지 실수를 나타내는 비일상적인 반응특성인 Sum6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54) = .03, ns$.

(2) Wsum 6: Sum 6에 포함된 6개의 특수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점수의 합으로 보다 심각한 인지적 왜곡과 인지적 장애와 관련된 반응 특성을 반영하는 Wsum 6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54) = .21, ns$.

8) 특수지표

(1) SCZI: 부정확한 지각과 왜곡된 사고를 문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SCZI 지표 결과,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외현화 집단이 내-외 혼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54) = 3.29, p < .05$.

SCZI 점수를 계산하는 7개의 변인 각각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chi-square test 실시한 결과 그 중 M->1 or X-% > .40에서만 외현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X^2(2) = 9.60, p < .001$.

(2) DEPI: 정서적 및 인지적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DEPI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F(2, 54) = .49, ns$. DEPI 지표의 집단 간 평균점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7개의 하위변인 중 심리적 고통감을 반영하는 Sumshading > FM+m에서는 내재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X^2(2) = 6.35, p < .05$

(3) CDI: 대인관계가 빈약하고 부적절하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함을 시사하는 CDI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F(2, 54)=.04, ns$.

(4) HVI: 대인 관계적 과민성을 시사하는 HVI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X^2(2)=.41, ns$.

연구문제 2. K-CBCL에서의 하위척도(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 행동, 성문제, 정서 불안정)와 로샤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 6을 보면, 내재화 척도의 경우, AG, $r(54)=-.40, p < .01$, Isolate/R, $r(54)=-.37, p < .01$, WsumC, $r(54)=-.35, p < .01$, R, $r(54)=-.33, p <$

$.05$, D, $r(54)=-.29, p < .05$)로 모두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Sum(C+Y+V), $r(54)=.28, p < .05$ 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현화 척도의 경우에는 Mor, $r(54)=-.39, p < .05$, P, $r(54)=-.37, p < .01$, Mp, $r(54)=-.32, p < .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K-CBCL 척도에 따른 로샤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위축의 경우, Cop, $r(54)=.38, p < .01$, Mor, $r(54)=.30, p < .05$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FC, $r(54)=-.28, p < .05$, R, $r(54)=-.28$ 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이다. 신체증상의 경우, Dd, $r(54)=-.29, p < .05$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An+Xy, $r(54)=.39, p < .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우울과 불안의 경우 Y, $r(54)=.37, p < .05$, Sum(C+Y+V), $r(54)=.38, p < .01$, FD, $r(54)=.27, p < .05$ 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다.

표 5. K-CBCL 척도 간의 상관(N=54)

	WD	SC	A/D	SP	TP	AP	DB	AB	Int	Ext	Tot	SP	EL
WD	1.00												
SC	.17	1.00											
A/D	.35*	.24	1.00										
SP	.38*	-.15	.43*	1.00									
TP	.20	.08	.22	.29*	1.00								
AP	.03	-.09	.06	.63**	.45**	1.00							
DB	.03	.01	-.06	.34*	.27	.26	1.00						
AB	-.15	-.03	.09	.13	.16	.37**	.56**	1.00					
Int	.53*	.59**	.83**	.41**	.32*	.14	-.01	.00	1.00				
Ext	-.15	-.03	.00	.15	.19	.43**	.75**	.96**	-.04	1.00			
Tot	.30*	.28*	.54**	.64**	.54**	.68**	.63**	.57**	.62**	.62**	1.00		
SP	-.192	-.143	.184	.25	.31*	.41**	.43**	.25	.04	.31*	.44**	1.00	
EL	.13	.20	.54**	.15	.28*	.19	.30*	.69**	.46**	.62**	.63**	.32*	1.00

표 6. K-CBCL척도와 로샤 변인 간의 상관(N=54)

	WD	SC	A/D	SI	TP	AP	DB	AB	Int	Ext	Tot	SP	EL
R	-.28*	-.10	-.26	-.21	-.17	-.30*	.084	-.054	-.33*	-.010	-.27*	-.051	-.267
L	-.19	.19	-.04	-.26	-.21	-.36**	-.15	-.07	.01	-.09	-.21	-.28*	-.21
SumC	-.17	-.20	-.20	-.07	-.17	.05	-.07	.06	-.35**	.02	-.20	.06	-.05
C'TYV	.21	-.04	.38**	.28*	.05	.08	-.08	.12	.28*	.05	.23	.19	.34*
C'	.19	.11	.26*	.08	-.05	-.03	-.08	.13	.25	.07	.14	.05	.28*
V	.00	-.03	.15	.13	.15	.11	.09	.24	.03	.24	.19	.38**	.26
Y	.16	-.25	.39**	.32*	.20	.06	.02	-.02	.22	-.03	.24	.27*	.18
P	-.06	-.15	-.29	.00	.19	-.08	-.25	-.39**	-.10	-.37**	-.17	.29*	-.22
Mp	-.08	-.15	.07	-.01	.10	-.12	-.13	-.35**	-.05	-.32*	-.12	.35*	-.14
CF	-.08	-.23	-.19	-.03	-.17	.02	-.13	.04	-.30*	-.02	-.23	-.05	-.01
FC	-.28*	-.04	-.16	-.20	-.11	.31	.29	.13	-.28*	.02	-.10	.26	-.15
D1	-.14	-.15	-.24	-.22	-.17	-.27	-.01	-.11	-.29*	-.08	-.32*	-.03	-.30*
Dd	.02	-.29*	.13	.04	.12	.12	.06	.08	.00	.11	.10	.21	.13
COP	.38**	.08	.08	-.05	.23	-.05	-.11	.04	.11	-.05	.05	-.16	.03
Isolate	-.18	-.21	-.14	-.24	-.08	-.16	-.01	-.12	-.37**	-.12	-.26	.00	-.26
FD	.13	.13	.27*	.27*	.30*	.21	.03	.09	.22	.05	.28*	.03	.02
An	-.20	.09	.03	-.19	-.03	-.16	-.08	.02	-.07	-.01	-.07	.34*	-.04
An +Xy	-.05	.39**	.07	.08	.21	.11	.05	-.01	.21	.02	.23	.05	.24
Mor	.30*	.02	.10	.30*	.09	.12	-.29*	-.36**	.20	-.39**	-.03	-.06	-.19
AG	-2.50	-3.20*	-2.81*	.04	-.20	.07	.18	.03	-.40**	.10	-.11	.09	-.22

주. WD= 위축, SC= 신체증상, A/D= 우울/ 불안, SI= 미성숙, TP= 사고, AP= 주의집중, DB= 비행, AB= 공격성, Int= 내재화, Ext= 외현화, Tot= 총 문제, SP= 성문제, EL= 불안정.

** $p < .01$, * $p < .05$

미성숙의 경우 Y, $r(54)=.32$, $p < .05$, Mor, $r=.30$, $p < .05$, Sum(C'+Y+V), $r(54)=.28$, $p < .05$ 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사고의 경우 FD, $r(54)=.30$, $p < .05$ 만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다. 주의집중문제 경우, Lamda, $r(54)=-.36$, $p < .01$, R, $r(54)=-.30$, $p < .05$ 로 유의한 역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격성의 경우, P, $r(54)=-.39$, $p < .05$, Mor, $r(54)=-.36$, $p < .01$, Mp, $r(54)=-.35$, $p < .01$ 와 유의한 역상관관계이며, 성문제는 V, $r(54)=.38$, $p < .01$, Mp, $r(54)=.35$, $p < .05$, An, $r(54)=.34$, $p < .05$, P, $r(54)=.29$, $p < .05$ 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불안정의 경우 D, $r(54)=-.30$, $p < .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고,

Sum(C+Y+V), $r(54)=.34, p<.05$, C, $r(54)=.28, p<.05$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내재화 척도는 신체 증상, 위축, 우울/불안 척도의 합으로 구성되었고, 외현화 척도는 비행, 공격성 척도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로사 변인 중에서 어떤 변인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잘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K-CBCL 척도 중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로사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사 변인들 중에서 AG 반응은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14.2%였는데, EB, Isolate/R(고립지표), MOR순으로 설명변인에 포함되어 설명력이 4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의 향상을 보였다. 내재화 집단은 공격성(AG)과 부적으로 유의하고($\beta=-.38, p<.01$), 자기생

표 7. 내재화 척도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설명 변인	Beta	표준 오차	t	R ²	F
1	AG	-.38	1.21	-2.94**	.142	8.62**
2	AG	-.49	.92	-3.98***	.288	10.29***
	EB	.40	.58	3.23**		
3	AG	-.46	.89	-3.88***	.357	9.25**
	EB	.32	.58	2.60*		
	Isolate/R	-.27	8.62	-2.32*		
4	AG	-.49	.861	-4.25***	.414	8.64***
	EB	.33	.558	2.76**		
	Isolate/R	-.26	8.33	-2.28*		
	Mor	.24	.866	2.18*		

* $p<.05$, ** $p<.01$, *** $p<.001$

표 8. 외현화 척도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단 계	설명 변 인	Beta	표준 오차	t	R ²	F
1	Mor	-.39	1.157	-3.05**	.152	9.33**
2	Mor	-.36	1.114	-2.96**	.235	7.84*
Mp		-.29	1.102	-2.35*		

* $p<.05$, ** $p<.01$, *** $p<.001$

각에 몰입해 욕구 해결하려는 경향(EB)과는 정적으로 유의하며($\beta=.40, p<.01$), 고립감과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beta=-.27, p<.05$), 손상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beta=.24, p<.05$).

다음으로, Mor반응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15.2%였는데, Mp 반응이 포함되어 설명력이 2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외현화 집단은 손상감(Mor)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beta=-.39, p<.01$), 대인관계에서의 수동-회피적 성향(Mp)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밝혀졌다($\beta=-.29, p<.05$).

논 의

본 연구는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아동의 각기 다른 행동양식에 대해 로사 반응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기저에 있는 심리적인 갈등이 어떠한 행동의 문제를 나타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로사 검사의 변인들을

Exner 종합체계(1993)에 따라, 통제, 정서, 자기 지각, 대인지각, 처리, 중재, 사고 순서로 변인들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집단 간 반응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샤 검사의 핵심영역에서는 전체 반응 수에서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외현화 집단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으며, 내재화 집단, 내-외 혼재 집단 별로 반응 수의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세 집단 모두 평균범위에 해당하지만, 외현화 집단이 내재화 집단, 내-외 혼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수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Exner (1995)의 연구에서 에너지 수준의 저하와 반응 수의 감소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 수준의 방해를 받아 우울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반응수가 20개 미만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적 사고활동과 정서적 경험을 사용한 개인의 반응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B 비율에서 내-외 혼재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내재화 집단도 내-외 혼재 집단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내재화 집단과 내-외 혼재집단은 내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는 반면, 외현화 집단은 감정표출과 더불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려는 면이 두드러진다. CF 반응이 유의하게 많다면, 정서자극이 주어졌을 때 별다른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Weiner (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며, 충동적인 감정표현양식은 Van der kolk와 Ducey(1984)의 연구의 '외향성 범주'로 구분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결과도 지지하고 있다.

개인의 스트레스 통제와 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D와 Adj D에서는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D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마이너스(-)방향으로 측정되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과 대응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스트레스상황에서 쉽게 압도되어 불안정해지며 이러한 대응능력의 결함 때문에 정서적 및 행동적 적응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배금예(2005)의 연구가 지지된다. Adj D는 내재화, 외현화 집단의 경우, $D < Adj D$ 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며, 내-외 혼재집단은 $D > Adj D$ 로 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음을 나타낸다.

로샤 반응에서 색채와 관련된 반응은 내외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 상태와 감정표현 방식 및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 연구결과, 정서영역에서는 색채반응의 총합인 WSumC는 외현화 집단이 내-외 혼재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재화 집단은 내-외 혼재집단에 더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현화 집단은 자극에 더 쉽게 반응을 하고, 정서적으로 더 충동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바 외현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해 문제행동을 드러낼 경향성을 지지해준다.

자가지각 영역에서는 자기중심성 지표인 $3r+(2)/R$ 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현화 집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자기가치가 가장 부정적인데, 공격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아중심성 지표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Loving & Russel, 2000). Mor의 경우, 자기와 환경에 대한 지각이 가장 비관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내재화 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자기 손상감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낮거나 높은 자아중심성 지표, FD의 상승, 반사반응의 부재, Mor의 상승이 DEPI

지표의 하위변인을 이루고 있어 우울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Exner와 Weiner(1994)의 주장과 일치한다.

대인지각 영역에서는 AG반응에서만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현화 집단이 가장 높고, 내-외 혼재집단, 내재화 집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G가 분명하고 직접적인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격성 예측변인이라는 Holt(1977)의 지적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계 영역과 정보처리 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재 영역에서는 X+%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외 혼재집단이 외현화 집단에 비해 관습적이고 현실지향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어 형태질이 가장 우수한 편이다. 사고 영역의 경우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특수 지표 중 SCZI 지표에서 외현화 집단이 내-외 혼재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M > 1$ or $X\% > .40$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현화 집단이 지각적 왜곡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SCZI 지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우울을 동반하지 않은 ADHD아동이 충동적인 사고과정으로 인해 사고나 인지왜곡과 같은 인지적 오류가 많다는 조은정(2003)의 연구, ADHD 아동이 주변환경을 부정확하게 지각하고 왜곡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배금예(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 DEPI지표는 전체 평균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하위변인을 살펴봤을 때, $Sumshading > FM+m$ (정서적 고통감)으로 내재화 집단이 가장 많아 내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좌절된 욕구를 해결

하려 하지만,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아동이 내재화 집단에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CDI의 경우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세 집단 모두 $CDI > 3.5$ 으로 유의한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대인관계가 빈약하고 부적절하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능력이 결핍된 것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경우, K-CBCL 하위척도와외 상관을 봤을 때 우울/불안의 문제와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 증상, 위축, 미성숙, 사고와 유의한 상관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로샤 변인으로는 AG(공격적 내용)가 적고, Isolate/R(고립지표)가 낮으며, WsumC, R과도 유의한 역 상관을 보이고 있어 환경과 상호작용하거나 감정을 표출함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경향성이 적겠으며, 전체 반응수가 적어 사고나 연상활동, 에너지 개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K-CBCL의 하위척도를 봤을 때, 공격성, 비행, 불안정, 주의집중, 성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공격적인 행동의 문제, 비 일반적인 행동의 문제를 보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주의가 산만하며 성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샤 변인과의 상관을 봤을 때, Mor, P, Mp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손상감이 적어 내면의 갈등이 자기 내부로 향하지 않으며, P가 적어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양식이 아닌, 지각적 왜곡이나 일탈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Mp가 적어 대인관계에 있어 회피

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적는데, 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로샤 변인 중 어떤 변인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잘 설명해주는지 구명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공격적인 내용이 적을수록, 환경과 상호작용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몰입해서 욕구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클수록, 고립감이 적을수록, 손상감이 높을수록 집단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임상심리학적인 관점과 예방차원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행동문제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아동 전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아동을 고려하여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로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아동을 대표하는 대표집단으로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발달 단계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년별 발달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로샤 변인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보고만을 근거로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행동문제의 특성만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성향에 따라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행동문제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분류집단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각 집단 수, 전체 N수가 너무 적은 수였으며, 검사 실시된 연구대상이 부족해 연구자가 검사를 직접 다 수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시행했던 자료를 함께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검사의 신뢰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세 집단 간 로샤 변인의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정상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정상통제군과 사전에 더 포괄적으로 통제된 임상군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시사점을 얻는다면 치료적 함의를 찾는 데 더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규 (2004).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증보판, 동문사
- 고기원 (2005). Rorschach 반응에 의한 청소년 비행 성향의 예측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만권 (1987). Exner방식에 의한 정상 임상군 Rorschach 반응 특성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윤, 유영금 (1993). 한국 정상 아동의 Rorschach 반응의 요인분석. 아동연구(93, 2),
- 김영환, 김지혜 외 (2000). 로르샤하 워크북. 학지사.
- 김윤희, 신민섭, 권석만 (2004). 아동 및 청소년

- 년 환자군의 정신증적 장애진단에 있어서 Rorschach검사의 PTI와 SCZI의 진단적 유용성 비교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3(3), 815-827.
- 도상금 (2001). Rorschach 검사의 치료적 활용. 대학생활연구. 제19호 2001.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67-86.
- 박영숙 (1994).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 박진희, 조선미 (2001). 아동 로샤검사에 있어서 표준화된 방식과 수정화된 방식의 비교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0(2). 287-298.
- 배금예 (2005). 로샤 검사에서 나타난 ADHD 아동의 심리적 특성. 정서장애 행동연구: 21(4). 45-69.
- 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기 우울증의 평가.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5(1). 12-27.
- 신민섭, 고승희 (1995). Multidimensional Scailig을 이용한 아동기 우울증, 우울증적 품행장애, 그리고 품행장애 간의 진단분류적 접근. 신경의학, 20, 94-106.
- 신윤오, 조수철, 홍강의, 김자성 (1993). 소아정신과 입원 환자의 공존질병. 소아청소년 의학, 4, 91-97.
- 양익홍 (2000). 품행장애의 로샤 반응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9(4). 853-881.
- 오가혜, 고기원, 조선미 (2005). 로샤검사 반응에 의한 청소년 비행성향의 예측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2(4), 195-214.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5).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이현진, 박영신 외 (2004). 아동정신병리. 시그마프레스.
-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윤녕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면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정, 이선미, 이문숙 (2003). 우울 동반 여부에 따른 ADHD의 Rorschach 반응 특성 비교, 14, 2, 174-182.
- 조현춘, 송영혜, 이명희 (1995). 아동의 로샤 반응. 정서. 행동 장애연구. 63-79.
- 최정윤 (2002). 심리검사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282.
- 하은혜 (2006).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특수성 검증: 내재화 장애와 외면화 장애를 변별하는가?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5권 2호, 429-447.
- Achenbach T. M., Ed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Thomas Achenbach, Burlington, VT.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Cantwell D. P., Carlson G. A. (1979).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37: 445-449.
- Exner, J. E.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ume1*. Basic Foundations New York: Wiley.
- Exner. J. E., Weiner I. B. (1982).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3;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hn Wiley & Sons, Inc.,

- York, pp.129-209.
- Exner, J. E., Weiner I. B. (1995).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ume3: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cond*
- Holt R. R. (1977). A method for assessing primary process manifestations and their control in Rorschach Responses. In M. A. Rickers-Ovsiankina(Ed.), *Rorschach Psychology* (2nd ed.), 375-420. Huntington, NY: Krieger.
- Loving, J. L., & Russell W. F. (2000). Selected Rorschach variables of psychopathic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1), 126-142.
- Patterson, Barbara DeBaryshe, and Elizabeth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Quay, H. C., & Peterson, D. R. Manual for the Behavior Problem Checklist. Published by the authors at 59 Fifth, Highland Park, New Jersey, 08904, 1979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 (1970). *Education health & Behavior*. London: Longman.
- Rutter, M., Tizard, J., Yule, M., Graham, P. J., Whitmore, K. (1976). Research report: Isle of White studies, 1964-1974. *Psychological Medicine*, 6, 313 - 332. (s)
- Rutter. M, Tuma AH, Lann IS (1988); *Assessment and Diagnosis in Child*, New York, Guilford Press.
- Sol L, Garfield. The Rorschach Test in clinical diagnosis. *J of Clinical psychology* 2000; 6(3): 387-393
- Van der Kolk, B. A., and Ducey, C. P. (1984).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Rorschach in PTSD*.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C, p.29-41
- Weisz, J. R., & Weiss, B. (1991). Studying the "Referability" of Child *Clinic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66-273.
- Weiner (1998). *Prin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원고접수일 : 2009. 9. 9.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18.
게재결정일 : 2009. 12. 4.

An Analy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Responses: Focusing on Children with Internalizing Problems vs. those with Externalizing Problems

Kuen-Jeong Youk¹ Jin-Ah Doh¹ Ho-Soon Bae² Myung-Ho Lim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Dan kook university hospital

²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roblems, to contribute to current knowledge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for children with various behavioral problems. We divided 54 children, who were psychiatric outpati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but excluding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nd Mental Retardation), into 3 groups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mixed problems) using the Korean child behavioral checklist (K-CBCL). Our research investigated two questions; First, Would there be any significant Rorschach responses differences, in accord with Exner's A comprehensive system (1993) among the three groups? Second, Would the children's Rorschach responses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low-ranking scales of the K-CBCL? We analyzed the data by means of Chi-square test, ANOVA, Tukey test, ANCOVA, Helmert contras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ed via SPSS 12.0 program. The three groups' common significant characteristics were 'higher Lambda values', 'D score < 0', 'lower Afr values', and 'CDI > 3.5'. The Mixed and Internalizing groups had lower energy levels, and more rigid thinking than the Externalizing group did. The Mixed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inclination to absorb inner thought activity than the Externalizing group did. The Mixed group also had higher X+%, than other groups did and was more likely to have D > Adj D. The Internalizing group was more likely to show 'Mor (Morbid response)' than other groups were, so this group was the most self-critical, most extremely damaged, and had the lowest aggressive movement content. The Externalizing group had a significantly greater inclination to change personalities to fulfill desires, They externalized their inner hostility and expressed their aggression. The External group's number of Form Qualities responses that were minus or unusual was higher than in the other groups, so they had a greater inclination to perceive unusually and impulsively.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 future research.

Key words :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Mixed problems, Rorschach, K-CBCL